

민주연구원, 『2026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발간 기념 부산·울산·경남 종합격차 토론회 개최

- 부동산·교통·소득·일자리·교육 격차는 감소한 반면, 인구·건강·주거 격차는 증가
- 전체적으로 성장 주도 지역의 둔화로 인한 부울경 지역 격차의 ‘하향 평준화’ 경향 확인
- ‘5극3특’과 연계한 지역주력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 강화,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생산과 고용 간 선순환 체계 강화 필요성, 지역인재 정주 요건 개선 등 정책제언 이어져

5월 6일(수) 오후 2시,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과 부산민주연구원6.0(원장 김상운) 공동주최로 부울경 종합격차 토론회를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민주연구원 불평등보고서』 발간에 맞춰 대한민국의 종합격차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1차 토론회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광역생활권이자 경제권인 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2차 토론회이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불평등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2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물로서, 올해 4번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용한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과 지역 인재의 정주 여건 강화, 삶의 질 중심 지역 발전 모델 구축 등 2026 불평등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구체적 제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과 이재명정부의 과제에 녹아들고 현실화되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부산민주연구원6.0 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비수도권을 그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로만 여겨왔다”고 말하고, 이 토론회가 “통계 너머의 체감을 헤아려, 부울경 시도민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황선웅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의 발표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울경 지역 격차의 ‘하향 평준화’ 경향은 ① 지역 전체의 전국 대비 종합 상대 점수의 하락과 ② 2019년 기준 지역 내 상위권 기초자치체일수록 2022~23년 전국 대비 위상이 크게 하락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종합격차지수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통해 그 특징별로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지역내 격차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① 그룹1은 해안산업벨트 성장거점 지역으로 전통적인 산업지대이나 전국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와 남구, 경남의 창원과 거제, 양산, 김해시가 대표적이다. ② 그룹2는 인프라 우위 정체형 도심지로 정주 매력도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인데, 부산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③ 그룹3은 대도시 배후 중소도시로 소득, 인구, 주거, 교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경남 밀양, 고성 등이 포함된다. ④ 그룹4는 경남 서부 농어촌 지역으로 쇠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셋째,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하향평준화의 원인을 산업편재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울경 지역의 하향 평준화추세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구조변화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이러한 부울경 지역의 종합격차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무엇보다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해양·물류·금융, 울산의 자동차·조선·에너지, 경남의 조선·항공우주·방위·기계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AI 등 새로운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생산과 고용 간 선순환체계를

고도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②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인재 유입이 선순환하는 고진로 전략수립을 위해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인재기금 조성, 교육체계를 재구조화하며,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③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산업전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대기업 유치가 일자리 문제의 유일한 대책인 시대는 지났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K-콘텐츠 비율을 높이고, 매력적인 생활 여건과 정주환경을 위한 사회적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토론은 김병진 (주)커넥티드위즈덤 정책연구소장, 우동준 (사)부산청년들 이사, 문다슬 인제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김병진 소장은 부울경지역의 '연결과 순환'을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벨트, 미래소재산업벨트, 관광문화산업벨트 등 광역권내 순환체계 형성과 부울경 메카시티 복원을 통한 연결과 순환을 지속할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한다. 우동준 이사는 청년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생활권 보전 정책을 제안하면서, 해안권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익이 부산 내부의 청년 주거·문화 인프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문다슬 교수는 건강격차의 관점에서 성장중심의 거점지역 경쟁력 회복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조건에서 출발하는 사회불평등 완화 정책을 주문한다.

이번 토론회가 부울경 지역의 격차와 다양한 삶의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참고] 민주연구원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 개최 일정

- (1차) (종합 및 서울) 대한민국 종합격차 현황과 진단, 해결과제
(4.29.수,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2차)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과제
(5.6.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2층 중회의실)

대한민국 종합격차 토론회

1차 토론회

대한민국 종합격차 현황과 진단, 해결 과제

2026년 **4월 29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진행 강병익 정책연구실장(민주연구원)

축사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

인사말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문진석 의원(국회의원 연구모임 경연 대표의원)

손명수 의원(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좌장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발표 신영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이진수 연구위원(토지·자유연구소)

토론 전병유 교수(한신대학교)

정준호 교수(강원대학교)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주최 민주연구원,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손명수 국회의원실



The Institute for Democracy

2차 토론회

부울경 종합격차 현황과 해결 과제

2026년 **5월 6일**(수)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2층 중회의실

진행 장호철 사무국장(부산민주연구원6.0)

축사 변성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인사말 김상윤 원장(부산민주연구원6.0)

좌장 이재영 원장(민주연구원)

발표 황선웅 교수(국립부경대학교)

토론 김병진 소장(커넥티드워즈덤 정책연구소)

우동준 이사(부산청년들)

문다솔 교수(인제대학교)

주최 민주연구원, 부산민주연구원6.0



The Institute for Democracy